

# 포스코 '철강 경쟁력' 8년 연속 세계 1위

### 전문 분석기관 WSD 선정...37개社 기술·생산성 등 평가 2002년부터 13년...기술혁신·원가절감 등 5개 항목 만점

포스코가 8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평가 받았다. 세계적인 철강전문 분석기관 WSD(World Steel Dynamics)는 26일 전세계 철강사 및 주요 건설업체인, 시장조사 전문기관 관계자 650여명이 참석해 뉴욕에서 열린 '제32차 글로벌 철강 전략회의' 세계 철강사 경쟁력 평가서 포스코를 세계 최고 철강사로 발표했다.

철강사'로 평가받은 포스코는 2010년부터 8년간 연속 1위로 변함없는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외 시장 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 등 어려운 시장 환경과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속에서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값진 평가다. 글로벌 철강 전략회의는 세계 철강산업

동향 및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WSD는 전 세계 37개 철강사들을 대상으로 생산규모·수익성·기술혁신·가격 경쟁력·원가절감·재무건전성·원료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한 경쟁력 순위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포스코는 WSD가 글로벌 철강사 경쟁력 순위를 최초 발표한 2002년 이래 총 13회에 걸쳐 1위에 선정됨으로써 가장 장기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는 솔루션마케팅 강화 및 WP(월드프리미엄)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 활동과 재무구조 개선 활동 등을 높게 평

가받았다. 특히 기술혁신, 원가절감, 노동속련도, 구조조정, 투자환경 등 총 5개 항목에서 만점인 10점씩을 획득하며 지난해 보다 0.26점 높은 8.31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주요기업에는 철광석과 석탄 광산을 보유한 러시아 철강사 세베르스탈(2위), 기술혁신과 수익성을 개선한 미국 철강사 뉴코어(3위), 역시 철광석을 보유한 러시아 철강사 NLMK(4위), 사립다각화 및 구조조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신일철주금(5위)이 선정됐다. /광양=백영진기자 pyj4079@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91.95 (+3.29)
-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1)
- ↑ 코스닥 372.63 (+4.27)
- ↓ 환율 (USD) 1136.90원 (-0.20)



## 기아차 1천만원대 SUV '스토닉'

### 내달 13일 출시...사전계약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내세운 기아자동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톤(STONIC)의 실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기아차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구소에서 스톤의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출시한 현대차 코나에 스톤까지 앞세워 쌍용차 티볼리가 장악하고 있는 소형 SUV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다음 달 13일 출시되는 스톤은 코나보다 체형이 약간 작다. 코나와 달리 사륜구동이나 가솔린 모델도 없다. 1.6 VGT 디젤엔진과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이 기본 장착됐다. 스톤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보다 가격이다. 기아차는 스톤의 기본 트림(디럭스)의 가격을 1895만~1925만원 사이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이보다 뒷사양인 트랜디는 2065만~2095만원, 프레스티지는 2265만~2295만원으로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가격과 차체 크기는 줄었지만 안전·편의사항은 촘촘하게 보강됐다. 급제동·급선회 때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차량자세제어시스템플러스'(VSM+)가 기본 탑재됐다. 이 기능은 차체자세제어시스템(VSM), 직진제동 솔림방지 시스템(SLS), 급제동경보시스템(ESS), 경사로림방지장치(HAC)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전방충돌경고(FCW), 차선이탈경고(LDW),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의 기능도 적용됐다. 한편,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에게 계약금 10만원 지원 또는 하반기부터 스키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사전계약 고객 중 5명을 추첨해 85만원 상당의 주행안전 패키지를 무상 장착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계약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 남광건설 법정관리 졸업...3년만에 정상화

### 경비 절감·구조조정 등 자구책 효과...파산 극복 모범 사례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주)(회장 김대기)이 지난 2014년 7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지 3년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27일 남광건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이날 남광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남광건설의 주 채권자인 광주은행도 회생절차 종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회생

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광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은 법정관리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임·직원이 혼연 일체가 돼 비영업을 자산매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경비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지난 3월 광주 국립미술품장보존센터 건립 공사(239억9000만원)를 수주한 것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남광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은 도급 순위 하락과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법정관리를 하도급 사업자나 건설공제조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파산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했다. 이에 따라 남광건설은 그동안 수주 상의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게 돼 경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개선돼 공동도급 등이 용이해져 공사수주 참여 기회 대폭 확대 등 회사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70년 설립된 남광건설은 광주시 동구에 본사를 두고 토목, 건축, 환경·플랜트, 조경 등 관급사업을 주로 펼쳐왔다. 2013년 기준 시평액 1130억원, 국내 도급순위 166위를 차지한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수주·사업 다각화 실패 등으로 유동성에 위기에 빠져 2014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광융합산업 세계 흐름 본다 일산 'LED&OLED 엑스포'...14개국 270개사 참여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광융합엑스포인 '국제 LED & OLED EXPO 2017'이 27일 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엑스포는 LED, OLED, 광통신, 광학기기, LASER 관련 조명, 장비, 부품, 소재, 융합 등 광산업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총 14개국 270여 개사, 600여 부스 규모로 개최되고 있다. LED와 OLED, 광통신, LASER 등 광산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광융합산업발전포럼, LED산업포럼, 아파트 LED조명 표준화·규격화 설명회, 제22회 금요살롱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주)동부라이텍, 테크엔, 정호그룹, 유안디엔유, 알에프세미, 재진가로등, 해찬, 씨티엘, 파인테크닉스, 에니캐스팅, 지엘비전, 코리아반도체조명, OSRAM, 미국의 Cambridge Isotope Laboratories, 독일의 BJB, 중국의 EVERFINE, INVENTRONICS, 대만의 MEAN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광융합엑스포인 '국제 LED & OLED EXPO 2017'이 27일 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회 장애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재형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WELL ENTERPRISES 등 국내외 업체가 참가해 제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LED산업의 산업동향을 전망하는 'LED산업포럼2017'과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실질적인 해외바이어 70여명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수출상담회', 한국

광산업진흥회 해외 마케팅센터를 통한 해외바이어 150여명을 초청해 3일 동안 진행되는 '수출상담회', '제 10회 신기술개발 우수업체 정부시상'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장은 "광산업

이 타 산업의 융·복합으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다"며 "이에 맞춰 각 광 관련 엑스포를 하나로 합쳐 한층 더 풍성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금호타이어 "타이어 1개 파손시 2개 보상"

### 내달 10일부터 보험상품 운영

금호타이어는 주행 중 타이어 1개가 파손되면 무상으로 2개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에서 롯데손해보험과 '원플러스원 보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상품은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 짝수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험료와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 교체 시에는 주행 중 마모 방지와 차량 균형을 위해 짝수로 교환하기를 권장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행사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션, 솔루션 TA31, 크루젠 HP71, 크루젠 HP 91 등이며, 이들 프리미엄 타이어를 4개 이상 구매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1인당 100만원 이내(1회만 적용)이고, 최대 4개까지 교환할 수 있다. 고객은 보상보험금의 10%를 면책금 형식으로 내야 한다. 승합차와 화물차 차량, 단순 수리작업이 가능한 일반적인 펌크나 편마모로 인한 교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 기간은 타이어 교체일로부터 1년 또는 1만2천km 주행 대상이다. 금호타이어는 다음 달 10일부터 자사 유통점인 타이어프로에서 이 보험상품을 운영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명당찾아 삼천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집터(양택)와 가장 좋은 묘터(음택)을 찾아줍니다!**

(정호) 안 성 준 010-3342-6338

---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상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진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런트 이영 후**

한국방수시험연구원 2014 제2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kr](http://www.ipalg.co.kr)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이나 잔 랜디나와의 플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